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⑰ '우리들의 블루스'(2022)

삶의 주인공인 우리 모두 행복하라

'우리들의 블루스'는 독특한 형식의 드라마다. 보통 드라마는 남녀 주인공이 있고 그들과 관련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양념처럼 끼워 넣기 마련인데, '우리들의 블루스'는 주인공만 무려 14명이다. 여섯 살짜리 은기(배우 기소유)부터 70대 춘희(배우 고두심)까지, 트럭에 온갖 물건을 싣고 다니며 파는 동석(배우 이병헌)부터 은행 지점장 한수(배우 차승원)까지, 또 이제 막 새 생명을 잉태한 고등학생 영주(배우 노윤서)부터 곧 죽음을 앞둔 옥동(배우 김혜자)까지, 그야말로 성별과 나이와 직업이 모두 다른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이 여러 명 등장해 각각의 에피소드를 전개해 나가는 드라마를 옴니버스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또한 '한수와 은희', '영옥과 정준', '영주와 현' 등 회차별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런데 '우리들의 블루스'는 에피소드마다 주인공이 다르고 각각의 스토리가 단절되는 일반적인 옴니버스와는 구성과 형식 면에서 차이가 있다.

드라마의 3회까지 이어지는 첫 에피소드 '한수와 은희' 편을 보자. 배경이 제주도임을 한눈에 보여 주는 바닷가, 카메라는 버스를 개조한 집에서 잠을 깬 정준(배우 김우빈)에서 시작해 곧바로 공간을 옮겨 침대에서 자는 영옥(배우 한지민)을 지나 주방에서 주먹밥을 만들고 있는 에피소드 주인공 은희(배우 이정은)를 보여 준다. '은희수산'이라 적힌 트럭을 몰고 집을 나서는 은희가 정준을 만나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어시장에 도착하면, 이번엔 어시장에서 얼음을 나르는 호식(배우 최영준)이 스치듯 지나가고, 영옥의 정체가 해녀이고 정준이 선장임을 알려 주는 데까지만 장장 12분 정도 걸린다. 에피소드의 또 다른 주인공인 한수가 등장하는 건 그다음이다.

이후 은희와 한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틈틈이 다른 주인공들의 관계가 소개된다. 제주도 푸릉마을 은행 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한수는 은희와 호식과 인권(배우 박지환)의 동기동창이고 동석은 이들의 후배이다. 호식과 인권은 동기동창이면서도 원수처럼 지내는데 인권의 아들 현(배우 배현성)과 호식의 딸 영주(배우 노윤서)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또 춘희와 함께 사는 옥동은 동석의 어머니인데 동석과는 서로 남처럼 지낸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주인공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한다.

이처럼 드라마는 1회부터 3회까지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인물이 한수와 은희지만, 잠시 조연이 된 다른 주인공들의 사연도 놓치지 않고 보여 주고 있다. 형식은 옴니버스이지만 에피소드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회차별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 주인공 옴니버스지만 모든 이 에피소드 담아 본래 깨달아 있다는 화엄불교 입장도

인생은 각자가 주인공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시적으로 내가 중심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잠시 자신을 숨기고 조연을 자처한 것일 뿐, 사실 모든 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이런 이치를 화엄불교에서는 드러내고 숨기는 것이 자유롭다고 말한다. '나'라는 존재는 한 명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자식'의 모습을,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친구'의 모습을,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상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각각의 모습이 내가 아닌 것은 아니다. 내가 자식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친구나 부모의 모습이 숨어 있으므로 그저 자식의 모습만 겉으로 보일 뿐이고, 내가 부모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친구나 자식의 모습이 숨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누군가를 온전히 안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푸릉마을에서 같이 자란 은희와 미란(배우 엄정화)은 자타공인 '절친'이다. 그런데 3년 만에 고향에 와서 우연히 은희의 일기장을 보게 된 미란은 충격을 받는다. "아무리 고미란이 널 친구가 아닌 세상 만만한 '따까리'라고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고 이중인격자라도, 고미란한테 끝까지 의리 있게 싫은 거 상처 받은 거 티 내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은희의 비밀스러운 다짐을 본 것이다. 결국 둘은 심하게 다투고 평생 우정은 깨지고 만다. 미란에게 평생 하인 취급을 받았다고 여겨 온 은희와 서울에서 성공해 화려하게 사는 듯하지만 숨겨 온 상처가 많은 미란. 얼마 후 은희는 미란의 마사지숍을 찾아가 따진다. 그리고 이어진 미란의 대답. "의리가 있다면 서운하다, 상처 받았다고 말을 했어야지, 따져야지, 사과 안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머리를 뜯어야지, 그래야 그게 의리이지." 드라마는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불편한 감정마저 나누고 화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임을 두 사람을 통해 보여 준다.

제주도 푸릉마을 5일장을 터전으로 억척같이 살고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갈등과 화해를 보여 주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맨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자막을 넣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2600년 이어져 온 불교는 누구나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근본 가르침을 바탕으로 시간과 지역에 따라 가르침의 표현이 달라져 왔다. 우리는 모두 무명과 번뇌에 싸여 업을 짓고 있으므로 번뇌를 없애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가르치다가, 우리가 번뇌에 싸여 있기는 하지만 모두 성불할 씨앗을 지니고 있다고도 하고 심지어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고도 한다. 따라서 수행을 설명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는데 초기불교가 번뇌를 줄이는 방식을 말한다면, 여래장불교에서는 불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화엄불교에서는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사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마지막 전언을 보면, '우리들의 블루스'는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는 화엄불교의 입장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 각자가 세상의 주인공임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표현하면서 마지막 자막을 통해, 주인공인 우리 모두 행복하라는 위로와 안식의 말을 전하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다. 오늘도 내가 주인공인 나만의 블루스를 연주하며 살 뿐!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의지해서는 안 되는 행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㉝ 삼종의 무의행법(無依行法)

무의행(無依行)이란 의지해서는 안 되는 행이란 뜻으로, 번뇌는 생·노·병·사에 따라 생기며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 경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대범천아, ①차죄(遮罪: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결과 죄를 범할 우려가 있기에 금지함. 음주나 땅을 일구므로 벌레를 죽이거나 초목을 꺾거나 하는 등)와 ②성죄(性罪: 행위 그 자체가 죄인 것: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의 무의행법(無依行法: 차죄, 성죄, 근본 죄)이 있다. 성죄 가운데도 근본의 무의행법이 있으니 그것은 이른바 비구가 범행이 아닌 행을 행하면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요, 혹은 일부러 이생(異生)을 죽이면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며, 삼보의 물건이 아닌 것을 훔치면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요, 혹은 크게 거짓말을 하면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이 4종의 근본 죄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는 모든 비구들의 일에서 절복(折伏: 복종 시킴)을 받게 하고 일체의 은혜를 베풀 수 없으며 스님들에게 주는 물건일지라도 받아쓰지 못한다. 그러나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목숨을 끊지는 못하나니, 이것이 성죄 가운데 근본 중죄인 무의행법이니라.

또 ③근본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이 네 가지 법을 범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세계에 떨어지나니, 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근본 죄이기 때문에 근본 죄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무간 죄와 무간 죄에 가까운 근본 죄 등을 '지극히 중대한 죄 악업의 무의행법'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비유하면 쇠뭉치나 아연, 주석 뭉치 등을 공중으로 던지면 잠시도 머물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오무간죄와 무간 죄에 가까운 4종의 근본 죄를 짓거나 바른 법을 비방하고 삼보를 의심하는 이 2종의 죄인(비방정법죄, 의疑삼보죄)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만일 누구나 이 십일종의 죄(오무간죄, 사근무간근본죄, 비방정법죄, 의삼보죄) 가운데 한 가지만 지어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곧 큰 무간지옥에 태어나 갖은 고통을 받나니, 그러므로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의 무의행법이라 하는 것이다.

이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의 무의행법을 범한 사람은 현재 몸으로는 결코 모든 번뇌를 다하지 못하며, 삼매를 이루지도 못한다. 하물며 정성이생(定性異生: 번뇌장을 끊고 영원히 범부의 생을 떠나는 것)에 어찌 들어가겠느냐? 그는 목숨을 마치면 결코 지옥에 나서 무거운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진실로 열반을 구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결코 이런 사법은 범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저 유정들은 반드시 삼인(三因: 정인正因 불성, 요인要因 불성, 연인緣因 불성)에 의해 열반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니라. 그 셋이란 ①여래를 의지함으로써 인(因)을 삼음이요, ②성교(聖教)를 의지함으로써 인을 삼음이며, ③나의 제자를 의지함으로써 인을 삼는 것이다. 저 유정들이 이 삼인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수행해야 열반의 즐거움을 얻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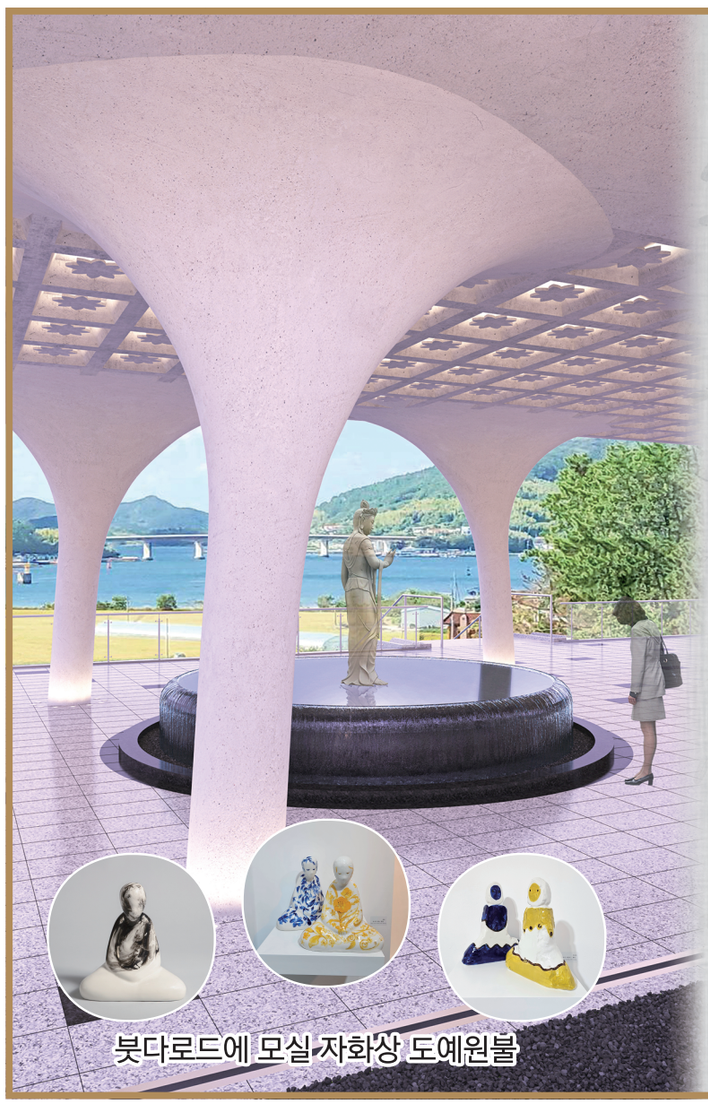
만일 누가 이 사법(四法: 4종의 근본 죄)을 범한다면 나는 그의 스승이 아니며,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만일 누가 이 사법을 헐뜯거나 범하면 내가 말하는 깊고 광대한 무상, 고, 공, 무아에 상응하는 일체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별해탈의 가르침(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별해탈 가르침을 어기면 모든 정려, 등지(等持)에 대해 장님이 돼 온갖 번뇌의 악업에 묶여 삼승의 법기도 되지 못하며, 반드시 나쁜 세계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는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말한 별해탈의 가르침과 4종의 근본 중죄에 대해 청정하여 변함이 없으면 나는 그들의 스승이요, 그들은 내 제자가 되어 내 법에 잘 머물러 모든 일을 원만하게 이룬다. … 이 사람은 일체 선법에 잘 머물러 구족하고 성문승과 독각승과 대승에 머무는 사람이라 한다. 왜냐하면 성죄(性罪)의 네 가지 근본법을 호지하면 모든 유루(有漏)와 무루의 선법을 세우는 훌륭한 인(因)을 이루나니, 이 사법의 호지함을 일체 선법의 기본이라 하느니라.

마치 대지를 의지해 약초, 곡식, 초목, 숲이 생장하는 것처럼 지극한 선에 의지해 사근본계(四根本戒)를 호지하면 일체 선법이 모두 생장하느니라. … 또 대지가 일체 유정을 다 수용해 생존하게 하는 것 같이 4종의 근본계를 호지하는 선남자 선여인도 그와 같아 여래가 설한 정법에 대해 기쁨과 깨끗한 믿음을 내고, 모든 유정에 대해 차별하는 생각이 없어 사섭법(四攝法: 불법을 실천하는 이가 상대를 불법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덕목. 보시, 애어, 이행, 동사)으로써 평등하게 섭수해 일체의 유정들이 함께 의지하고 받들어 법을 즐기면서 생존하게 하느니라."

〈송림사 주지〉



거북이가 알을 낳고 봉황이 내려앉는 명당

자손대대로 공덕이 이어지는 창건불사에 동참하십시오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상에 태어나는 큰 공덕이 됩니다.

한려수도의 심장 거제도 제석산이 감싸고 천연와불이 수호하는
대붕안착형·영구은란형 터로 세계적인 불교 성지가 될 것입니다.

동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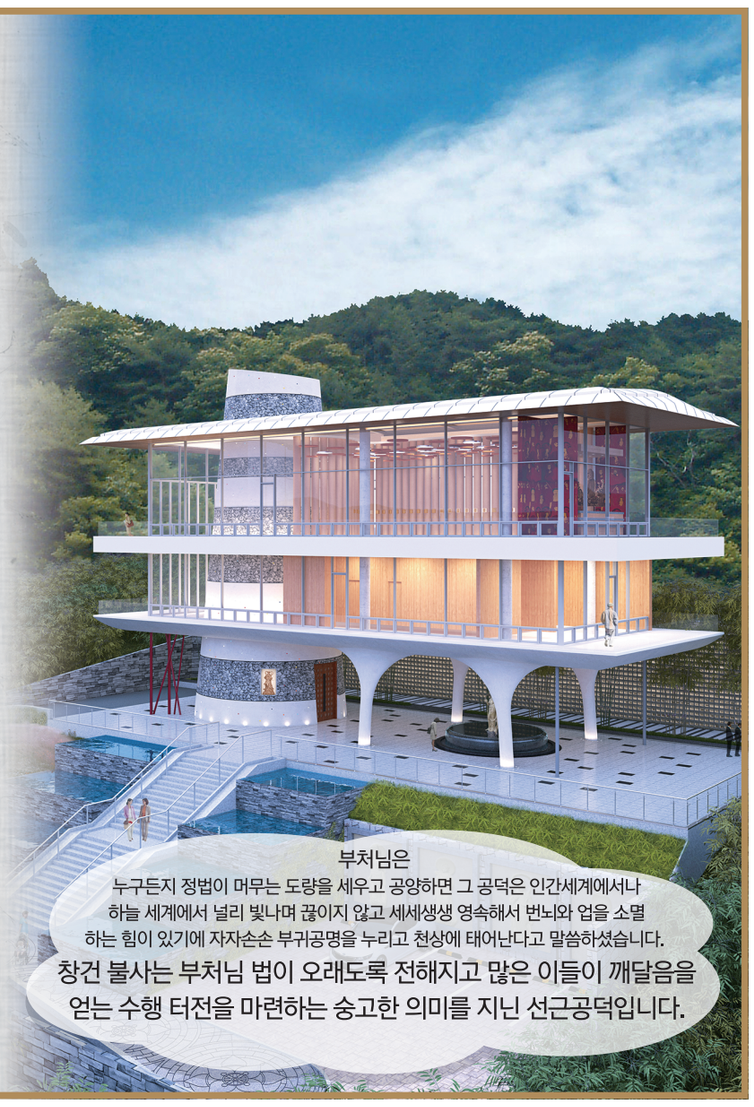
원불 108만원, 관음보살상1080만원으로 불자님의 원력과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원불:삼천불, 관음보살상:33불)
계좌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의 : 010-5514-1002 오오! 일사천리

불사개요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영산대학교 겸임교수)인 평천 범혜스님이 세계적인 불교 성지 탄생을 위해 여러 불자님의 원력을 모아 창건하는 신개념 사찰입니다.
세계적 건축 명장의 초현대적 감성과 불교 사상·우주관을 융합하여 남섬부주에서 9산8해의 중심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번뇌 망상을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도자기 원불에 자신만의 자화상이나 원력을 그려 넣어 도예작품으로 완성하여 붓다로드에 모십니다.
부처님의 상징인 흰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끼리 코기둥, 제석천 위 허공에 모신 실물 불상, 바다 위 허공에 모신 실물 33관음보살상, 종이 소재의 법당기둥, 구품연지, 금강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더붐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붓다로드에 모실 자화상 도예원불



부처님은
누구든지 정법이 머무는 도량을 세우고 공양하면 그 공덕은 인간세계에서나
하늘 세계에서 널리 빛나며 끊이지 않고 세세생생 영속해서 번뇌와 업을 소멸
하는 힘이 있기에 자자손손 부귀공명을 누리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건 불사는 부처님 법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 터전을 마련하는 숭고한 의미를 지닌 선근공덕입니다.